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국어 독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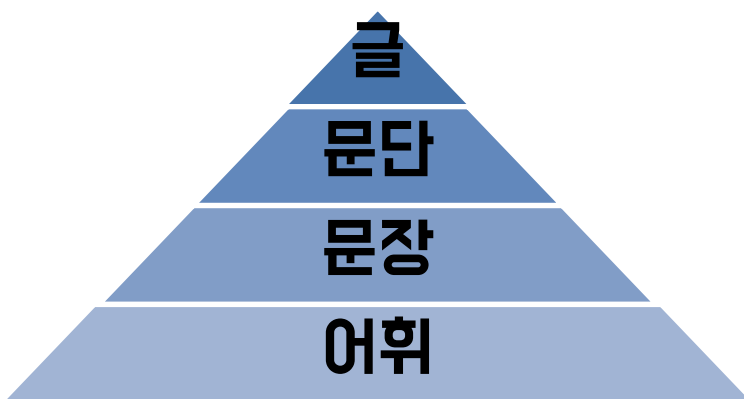
서성수 국어 독서3'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다양한 해결책 중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더 필요하다.

3등급 이하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휘력



1. 어휘 공부が必要な 이유

: 어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단어가 모여 문장으로 이루고 문장이 모여 문단을 만들고 문단이 모여 글이 된다. 글이라는 큰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어휘라는 벽돌이 좋아야 한다.

이런 어휘를 제대로 모른다면 구조도 등 다른 논리 독해를 잘하더라도 제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어휘를 모른다면 글을 중간 중간이 땀 뚫린 채로 읽게 된다. 이 뚫린 부분으로 인해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논리들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설령 글의 구조도& 를 활용해 땀 뚫린 내용을 유추하더라도 한 번 더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A의 반대'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또한 논리적 추론에서의 실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휘 부족의 또 다른 문제는 글을 읽어가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에 있다. 어휘를 모르면 일시적으로 글읽기가 중단 된다. 이로 인해 글 읽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글 읽기의 속도가 늘어지게 된다. 또한 글의 구조를 활용해 모르는 용어와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여러 번의 고민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과도한 시간 사용과 그로 인한 시간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

정리하면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의 어휘력이 중요하다.

2. 어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

: 이렇게 어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휘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아닌 문장, 문단 그리고 글의 구조를 건드리는 공부를 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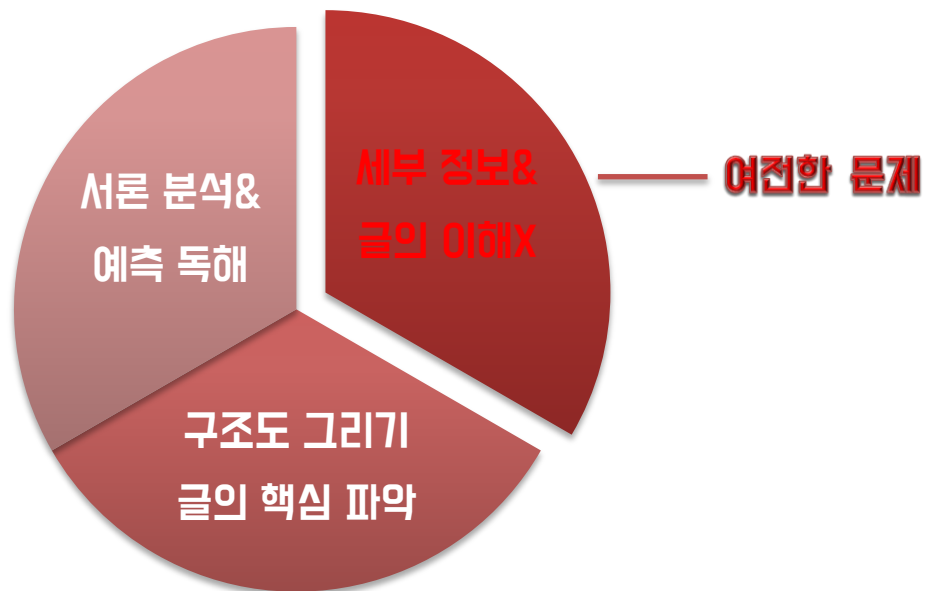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서성수 국어 독서3'

등급과 수준에 대한 고민 없이 서론을 읽고 글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예측하는 공부. 문단의 주제어를 파악하는 공부. 구조도를 통해 복잡한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글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글을 주도적으로 읽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시간의 절약에도 매우 좋다

그러나 이런 공부는 기본적으로 추론과 예측 등을 요구하며 난이도가 높다. 용어의 의미를 몰라 글이 킁킁핍 읽히는 3등급 이하에게 글 전체의 유기적인 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을 이해하라는 공부는 박찬 선택이다. 서론 독해와 구조도를 통해 글을 적극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글 중간 중간이 땀 뚫려버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어렵기만 한 공부로는 근원적 문제인 어휘력 부족이 해결되지 못한다



3. 새로운 어휘 공부

따라서 3등급 이하의 수험생이라면 어려운 예측 독해,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독해, 모르는 내용을 추론하는 독해보다 먼저!

어휘력을 보완하는 공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어려운 어휘를 쉽게 내 말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 과정을 따라 하자

서성수 국어 독서3'

① 문제를 풀고 다시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를 체크한다.

EX)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주체, 권리 능력, 채권, 채무, 법인격, 실체, 사단/

② 그 용어들 중 글에서 설명되는 않고 그냥 넘어가는 용어에 집중한다.

/ 주체, 채권, 채무, 실체/

③ 이렇게 정리한 어려운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눈으로' 쓱 찾아본다

주체- 사전적으로는 주관을 가진 개체를 말한다. 이 주체는 객체 혹은 객관과는 대립적인 말이다. 인식의 주체,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무인식의 주체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지거나 행위 하는 개체를 의미한다.

채권- 사전적으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대출을 생각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채무- 사전적으로는 특정한 행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대출을 생각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바로 채무이다.

실체- 사전적으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를 의미하고 성질 변화나 각종 현상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존재하는 근원을 말한다.

서성수 국어 독서3'

④ 이후 이 용어들을 바꾸어 쓸 수 있는 말과 이 용어들과 관련한 추가적인 구조들을 파악한다

*주제- ~하거나 가지는 사람/ 객체와의 대립적 구조

주제는 쉽게 ~ 가지거나 행위 하는 사람으로 바뀌서 글을 읽어가면 된다. 적용해보면 인식을 하는 사람, 권리를 가지는 사람, 의무를 지는 사람 등으로 읽어가면 된다.

이런 주제는 주로 객체와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주제를 행위를 하거나 무엇인가의 특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를 위한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객체는 주체의 행위와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주제와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다. 주체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이 되는 대상 혹은 인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객체이다.

주제와 객체는 서로 대립적이기는 항상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주제나 객체 중 하나가 나왔다면 다른 것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재권 & 채무- 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의무/ 대립적 구조

재권은 쉽게 행동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행동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서 글을 읽으면 된다. 적용해보면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로 읽어 가면 된다.

이렇게 재권과 채무는 서로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급부(특정한 행동)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다른 하나는 그 급부를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런 대립적인 관계를 고민해서 재권이나 채무 중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실체- 존재, 기초, 근원/ 외적인 모습이나 현상과는 대립적

실체는 쉽게 존재, 기초, 근원으로 바꾸어 글을 읽어가는 것이 좋다. 적용해보면 독자적 존재, 열의 기초이자 근원의 칼로리 등으로 바꿔가면서 글을 읽으면 된다.

실체는 철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근원은 기본적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외적인 모습과 형태가 끊임 없이 변화하는데 반해 실제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는 외적인 모습과 현상과는 주로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서성수 국어 독서3'

EX2/ONLINE)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법적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수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내서)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넘겨 주기)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경계가 무너진다) 법인의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독립적으로 행동하는)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 바꿔서 읽어 주기

* 전체적인 구조를 고민하기

모호하다- 경계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